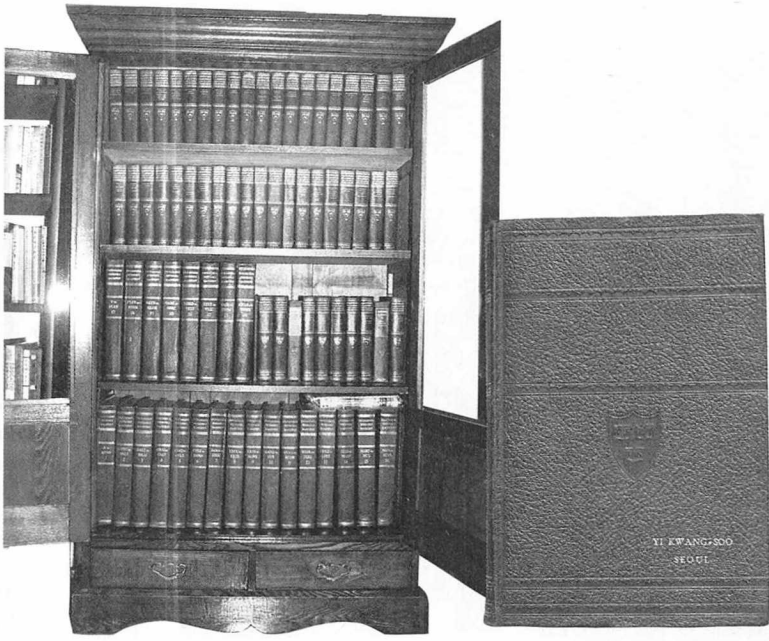


# 春園의 손때 묻은 '하버드 클래식'

출판인 노양환씨 소장... 미망인 許英肅이 입증 때 선물



춘원이 생전에 소중히 간직했던 「하버드 클래식」 전 50권 (왼쪽). 이 책장은 춘원이 손수 짠 것이다. 책마다 표지에 'YI KWANG-SOO'라는 영문 이름이 찍혀져 있다.

春園과 함께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 출판인 노양환씨(54·又新社 사장)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한다. “춘원 이광수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자신하는 그가 춘원과 최초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57년 3中堂에 입사하면서부터.

당시 삼중당에서는 해방후 처음으로 춘원의 일생을 정리할 傳記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일의 실무를 맡고 집필자인 박계주·곽홍숙씨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신화와 소문의 주인공”으로만 알았던 이광수와 자연스럽게 운명적인 해후를 하게 된 노사장은 이어서 「李光洙全集」의 기획·편집 실무를 맡게 됨으로써 춘원과 꿋꿋하게 얽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출판풍토는 개간이 덜 된 황무지나 다름없었고, 당연히 현대문학의 대표적 작가들도 전집은 커녕 변변

한 작품집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당시로서는 모험이었던 「李光洙全集」발간은 박종화·백철·정비석·주요한을 편집위원으로 하고 2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여기저기 분산되고, 작품집에서 누락되고, 신문에 연재만 된 채 사장된 글들을 수집하기 위해 노사장은 전국의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은 물론 멀리 일본 도서관까지 뒤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자연히 춘원의 친필원고를 비롯해서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춘원 작품의 초판본 및 춘원의 손때가 묻은 手澤本들을 많이 입수하게 되었다. 춘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평소 즐겨 읽었던 「톨스토이전집」(영역본)이나 「대영백과사전」도 현재 그가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관하고 있는 춘원의 수택본 중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은 뭐니뭐니해

도 「하버드 클래식」 50권. 이 전집은 1930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세계적 고전들을 선정하여 4·6판 50권의 책에 담은 것이다. 이 전집이 발간되자마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춘원의 친구 金昌世 박사가 이를 구입, 책 표지마다 금박으로 'YI KWANG-SOO'라고 영문으로 찍어 춘원에게 기증하였고, 당시 세검정 자하문 근처에 살던 춘원은 이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탐독하였다고 한다. 1934년 「하버드 클래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목공을 사서 특별히 책장을 만들게 했다는 사실로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 전집에 대한 춘원의 애착은 남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노사장이 이 「하버드 클래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책 자체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전집을 입수하게 된 경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전집은 이광수의 미망인이었던 허영숙씨가 1975년 9월 임종 직전 그에게 남긴 유품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이다.

노사장이 “한마디로 대단한 할머니”였다고 회상하는 허영숙씨는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를 역임했으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女醫師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다. 일본 유학시절 아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광수에게 접근, 열애 끝에 사회적 터부와 집안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에 성공한 그녀는 폐를 앓았던 이광수에게는 다시없는 힘이 되어주었지만, 이광수가 납북되고 만년에 아이들 삼남매마저 미국에

가서 정착하자 홀몸으로 명륜동에 쓸쓸히 살고 있었다. 노사장은 허여사와는 「李光洙全集」발간 때 실무관계로 자주 접촉을 가짐으로써 잘 알고 지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 가서 자식들과 함께 살려고 해봤으나 그곳 생활에 적응이 안돼 다시 귀국한 그녀는 반년 가까이 노사장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가톨릭 신도인 노사장 부부의 권유로 임종 직전 영세를 받기도 한 허여사는, 그동안 춘원전집발간과 자신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준 노사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하버드 클래식」을 선물하였다. 육이오의 북새통과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기억 때문에 허여사가 놓치지 않고 보관해오던 「하버드 클래식」은 이렇게 해서 노사장의 서재 한구석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

島山の 수재자로서 신문학의 개척자요 사회개혁가요 대문장가로 추앙받던 춘원 이광수. 그러나 그는 동시에 친일행적이란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기기도 했다.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광수를 보는 시각은 현재의 젊은 세대에 이르를수록 더 가혹해지고 준열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노사장은 이광수의 과오는 과오대로 평가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공까지 도매금으로 폄하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한다.

삼중당에서 나와 독립할 때도 퇴직금대신 「李光洙全集」의 판권을 가지고 나왔을 만큼 이광수에 대한 노사장의 애착은 남다르다. —남진우 기자

## 써바이벌 매뉴얼

미육군 써바이벌용 텍스트

식량확보기술 · 독도법  
구급법 · 항해기술  
안전대책 · 구조신호  
긴급탈출 · 대피소건립구축 등  
여러가지 기술을 구체적으로 수록  
찰스 이네스테일러 / 한국등산연구소 역

◆ 값 2,800원

## 등산을 하려면 누구든지 꼭 지녀야 할 등산 안내서

### 3판 한국 100명산

본문 2도 인쇄 / 유명산 100개소의 사진 / 산지도, 도벌지도(중부고도도로)

33년간 1,600여회의 등산 경험을 토대로 쓴 정확한 코스별 산행거리와 소요시간 그리고 상세한 안내설명이 담긴 책.

읽는 즉시 그 산의 또렷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산행의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진다.

정확한 코스별 산행거리 **안 경호 저**  
 적절한 코스별 소요시간  
 상세한 코스별 안내설명 **◆ 값 4,500원**

## 절규

孫章純 山岳小說集

철저한 현장감, 인간이 극한 상황과 좌절에 처했을 때의 고독이 무엇인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산악소설집 《절규》는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산악소설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청신호이다.

“등반 세계에 대한 열정과 도취가 살아있는 젊은 산록만이 신비와 영웅이 살아있는 유일한 광장이기 때문일까.”

◆ 값 3,000원

## 五分英語會話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엮은 영어회화의 결정판

쉬우면서도 틀리기 쉬운 일상 표현만을 모아 반복연습을 통해 정확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엮은 속성독습교재.

- 테이프 20개(교재포함) 값 70,000원
- 테이프 40개(교재·주해포함) 값 160,000원

시사영어학원장 문창순 저

◆ 교재 2권, 각 값 2,200원